

## Gamble Box Ep.01(KOR)

빈민가 지하상가구역에 위치한 지하복싱링. 현 링의 챔피언 츠구미 아키에는 도전자를 상대로 네 번째 방어전을 치루고 있었다.

"정말 하찮네. 제대로 된 펀치 한방 못 날리는거야?"

"빈곤한 애송이가 날려버려주겠어!"

퍼억!



"우구게엿...!!"

[정해졌다! 카운터를 노린 어퍼에 사치에가 마침내 침몰! 4라운드의 접전, 승리를 가져간건 챔피언인 아키에다!]

"흥, 너 같은 열간이한테 챔피언자리 따위 내줄거 같아? 그 실력으로 나한테 이긴다느니... 다시 태어나는게 더 빠를 것 같네."

[오늘도 링을 찾아주신 모두들 감사합니다! 아키에의 승에 건 손님들은 카운터에서 환금 부탁드립니다!]

같은시각, 곰팡이가 잔뜩 핀 허름한 도박장. 아키에의 프로모터 카와즈미(川角)는 갬블러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가운데서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로 자신이 가져온 손패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부 낡. 손패를 전부 바닥에 흩뿌려버린다.

"제길...!"

체육관의 숙소로 들어온 아키에는 카와즈미를 발견하고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때였다.

"아키에, 다음에 있을 방어전. 지는 시합으로 한다."

"하?"

카와즈미는 유키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지만 카와즈미의 평소 행실을 알고있는 아키에가 전후관계를 이해하는데는 어렵지 않았다.

"또야? 또 갬블에 꼴은거야? 지는 시합이라느니 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거야!"

"넌 너무 이겼다고! 이젠 돈이 안돼. 단체쪽과도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 단념해! 프로씬도 아닌 고작 지하복서 따위가 뭐가 챔피언이냐..."

기가 차서 얼굴을 붉으락 푸르락하던 아키에는 욕을 입 안으로 삼키고 이내 문을 부술듯이 닫으며 나간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일단 고아인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고 계속 링에 오르기 위해선 그를 거스를 수 없다는걸 알고 있었다.

당일이 되어 시합 개시 전. 아키에가 코너에 어깨를 걸치고 상대편 코너를 노려보고 있을 때 귀안쪽의 수신기로부터 카와즈미가 말을 걸어온다.

"아키에, 알고있겠지? 4라운드에 TKO패. 이 조건으로 진다. 알겠지?"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의 메인이벤트를 개시합니다. 지하링 최초 타이틀 방어 4연패를 달성한 챔피언, 아키에! 도전하는 건 아키바의 코스어! 데뷔하자마자 2연승을 따낸 코스프레 파이터, 미키!]

'뭐가 코스프레 파이터야. 저딴 녀석한테 챔피언을 내준다니 절대 인정 못해...!'

"풋, 챔피언이라도 별거 없어보이지않아?"

링 중앙에서 미키가 먼저 아키에를 훑어보더니 도발해오자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했던 아키에 눈에서 쌍심지가 켜진다.

"아앙?"



"그렇게 근본 없는 똥개끼리 똥구는 지하링에서 챔피언이라니 주제를 알..."

쿵!

열받은 아키에가 미키에게 거칠게 몸을 부딪혀오고 반응하지 못한 미키가 뒤로 나자빠진다.

"음...! 쌍년아, 뭘 짓거리야...!"

"일어나! 똥개한테 물어뜯긴다는게 똥지 깨닫게해주겠어...!"